

LUX HUMANITAS

VOL. 12. 2012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2 Peace BAR Festival 2012
- 03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 모색한 평화 축제
- 04 새로운 세계체제와 문명 창조의 길
- 05 "과학과 인문학의 재융합 이뤄져야 한다"
- 06 평화와 화합 기원하는 무용과 음악 예술축제
- 07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청년 학생의 역할

FOCUS

- 08 "지속가능 열쇠는 뉴 휴머니즘 교육"
- 10 국내 최초, 우주탐사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 11 경희의 연구역량, 세계적 학술지에서 주목받아
- 12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
- 14 GSC 봉사단, 몽골 대통령 훈장 수훈
- 15 걷고, 읽고, 생각하는 국토순례대장정
- 15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국 연변 의료봉사

TODAY

- 16 서울캠퍼스 기숙사 3개동 신축
- 17 치전원, 69억 연구비 지원받는 MRC 사업 선정
- 18 경희의 우승 행진, 멈추지 않는다
- 19 GC Summer Program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성장
- 20 "공학계열 발전은 경희의 미래"
- 20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 개최

PEOPLE

- 21 경희 인물 동정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KYUNG HEE UNIVERSITY

‘학문과 평화’의 더 큰 전진 Peace BAR Festival 2012

‘제31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가 9월 17~21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인간, 정치, 문명’이라는 주제 아래, 경희는 학술기관으로서 ‘더 깊은 성찰, 더 많은 공적 실천’의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구적 존엄성이 구현되는 ‘문화세계 창조’의 길을 모색했다. 경희는 지난 63년 동안 고등교육과 사회공헌을 통해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왔다. ‘학문과 평화’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동시에 이뤄질 수 있고, 이뤄져야만 한다는 명제에 충실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에는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UNAI-경희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조인원 총장은 뉴욕 UN본부 기조연설에서 “교육의 힘, 지성의 힘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새 세계, 새 마음을 열어가자는 것이 UNAI 설립 취지라고 이해한다”면서, 21세기 고등교육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류와 지구를 위한 학문적 실천, 창조적 봉사가 더욱 견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ace BAR Festival 2012는 국제학술회의와 문화예술 공연, 지구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된 하나’로 엮은 지구촌 평화축전이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평화의 미래다.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 모색한 평화 페스티벌

9월 17~21일, 평화와 화합의 학술·문화 행사, 사회봉사 축제 이어져
‘학술의 지구적 실천, 대학의 공적 봉사’ 통해 ‘21세기 평화담론’의 가능성 제시



Peace BAR Festival 2012 개최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가 요청하는 평화담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제31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가 9월 21일 폐막됐다. 1981년, 경희의 제안에 따라 UN이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선포한 후 경희대학교는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해왔으며, 30여 년의 전통이 쌓이는 동안 Peace BAR Festival로 확대·발전됐다.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지구공동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행사 주제를 ‘인간, 정치, 문명(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으로 선정했다. 조인원 총장은 개최식 환영사에서 “인간, 정치, 문명이라는 주제는 새롭지 않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문제를 다루고 또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폭력 없는 평화, 삶의 기초 욕구를 충족하는 평화,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평화를 위해, 인간, 정치, 문명에 대한 지구적 성찰을 거듭해 인식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학술회의에 예일대학교 이매뉴얼 윌러스틴 석좌교수를 초청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윌러스틴 교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와 진화, 새로운 문명과 정치에 천착해왔다. 지구사회, 미래문명을 열어갈 탁월한 안목과 혜안을 보여준 세계적 석학이다.

‘학술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온 경희는 올해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프로그램을 신설,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학술과 실천이 결합된 거öger적 사회공헌기구 경희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을 창설, 미래대학의 새로운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념무용제와 음악회 등 예술 공연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에 기여한다’는 경희의 또 다른 전통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 UN본부와 평화의 전당에서 동시 개최된 UN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기조발제에서 조인원 총장은 인류가 직면한 인도적 의제를 다루고, 지구촌 대학 사회의 시민교육과 공공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Peace BAR Festival 2012 개최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는 지난 63년 동안 ‘학술과 평화’를 추구하며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결합, 인간과 문명의 공동체적 함의를 역설해왔다”는 점을 떠올리며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가 요청하는 평화담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학술의 지구적 실천, 대학의 공적 봉사’를 통해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경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체제와 문명 창조 의 길

Peace BAR Festival 2012 국제회의, 이매뉴얼 윌러스틴 교수 초청
 ‘문명적 전환의 정치’ 강연 통해 “지적 성찰, 도덕적 선택, 실천적 전략” 촉구



이매뉴얼 윌러스틴 교수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7일, 세계체제론(World-systems Theory)으로 저명한 예일대학교 이매뉴얼 윌러스틴 석좌교수 초청강연이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문명적 전환의 정치(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라는 강연을 통해, 윌러스틴 교수는 “500년간 지속돼온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뒤,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한 지구적 시스템의 탄생

이매뉴얼 윌러스틴 교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500년마다 찾아오는 역사적 체제의 구조적 위기의 한복판”이라고 규정했다. 그의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유럽은 ‘긴 16세기(1450~1640)’에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식민화 과정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일부를 아우르는 근대세계체제(Modern World-system)라는 독특한 사회체제를 구성했다. “이 역사적 체제는 지속적인 지리적 팽창을 위한 내부 운동의 결과로서 19세기 후반까지 지구 전체를 포괄하게 됐으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한 지구적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근대세계체제 작동 원리 중에서 윌러스틴 교수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콘드라티예프 주기’와 ‘헤게모니 주기’다. 20세기 초,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50~60년 주기로 불황과 호황이 순환하는 장기적 경기변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윌러스틴 교수에 따르면, 콘드라티예프 주기는 막대한 양의 자본 축적을 요구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주요 방식은 소수의 생산자에게 준독점적 지위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준독점적 지위는 생산비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있게 해줬다.” 이 맥락에서, 윌러스틴 교수는 헤게모니 주기에 주목한다. 패권(hegemony)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강한 국가가 다른 생산자들이 세계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68혁명’과 신자유주의의 반격

지난 500년 동안 콘드라티예프 주기와 헤게모니 주기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준독점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이 이뤄졌다. 그 균형을 깬 것이 ‘68혁명’이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은 미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학생과 노동자들은 기존의 권위주의적·보수적 세계체제에 저항하고, 미국 헤게모니에 반대했으며, 구좌파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평등, 인권, 성해방, 생태 등 보편가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68혁명’을 계기

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진짜 보수적이고, 진짜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윌러스틴 교수의 분석이다. ‘신자유주의의 대대적인 공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세계화·자유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주장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1970년 이후 약 15~20년 동안 성공을 거뒀지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했다.”

한계에 도달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흔든 3개의 중요한 사건으로, 윌러스틴 교수는 멕시코의 네오사파티스타(neo-Zapatista, 1994) 봉기,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1999), 제1회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2001) 등을 꼽는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 계기가 된 네오사파티스타 봉기는 시애틀 WTO 반대 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애틀 시위는 2년 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을 태동시켰다. 세계사회포럼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운동 역량을 결집시킨 연합회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옹호하며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탈중심적·수평주의적 권력구조를 주장한다.

자본주의 이후 세계체제의 미래

500년 동안 지속돼온 근대세계체제의 위기 앞에서, 윌러스틴 교수가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의 선택은 현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위계·착취·양극화를 비자본주의적 형식으로 재생산하는 체제이며, 다른 선택은 아직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비교적 민주적이고, 비교적 평등한 체제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각각 ‘다보스 정신’과 ‘포르토 알레그레 정신’이라는 상징적 이름을 부여한 그는, 양쪽이 또다시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진다고 말한다. “다보스 쪽에는 억압을 효율적인 전략으로 삼는 것을 옹호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그룹이 있다. 포르토 알레그레 쪽에도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에 기반한 ‘수평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수직적 조직’의 힘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한 즉각적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현재의 세계는 “양분화된 투쟁이 아닌, 네 가지로 분류된 정치의 장이다.” 이 같은 복잡성이 지적·정치적·도덕적 혼란을 안겨준다. 윌러스틴 교수는 “이와 같은 복잡한 논쟁에 대한 지적 분석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말한다.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이 각자의 ‘도덕적 선택’이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능력을 목표로 최적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치 추구를 위한 최선의 정치전략 선택에 실패할 수도 있다. 결과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체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기껏해야 50대50이다. 그러나 이는 비판주의의 이유인 만큼이나 낙관주의의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과 인문학의 재융합 이뤄져야 한다”

라운드테이블, 지식구조의 ‘인식론적 재융합’ 위한 구체적 해법 모색



‘Peace BAR Festival 2012’ 개최 둘째 날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다.

‘제31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 개최 둘째 날인 9월 18일, 국회의회의 두 번째 순서로 라운드테이블이 서울 캠퍼스 청운관 B117호에서 개최됐다. 주제는 ‘지식의 구조들: 과학과 인문학의 인식론적 재융합?’. 예일대학교 이매뉴얼 윌러스틴 석좌교수는 기초발표에서 “대학의 지식구조를 과학과 인문학의 재융합을 통해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후 중세를 거치는 동안,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곧 ‘진리’인 지식구조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와 ‘과학자’가 등장했으며, 1715년부터 1815년에 이르는 100년 사이, 지식구조를 뒤엎는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대학의 변형이다. 철학을 기초로, 과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학제가 만들어졌다.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고, 과학과 인문학의 중간에 사회과학이 생겨났다. 지식을 범주화하는 다양한 학문 분과와 학제가 형성됐다. 두 번째 사건은 서구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복과 침략의 과정에서 서구의 제도가 식민지에 전해지고, 과학이 지배적인, 분화된 학제의 대학이 들어섰다. 서구의 지식구조가 전 세계에 자리 잡았다. 이후, 지식구조는 더 전문화되고, 학문적·실용적 측면에서 발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윌러스틴 교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제를 통해 인식을 좁히는 내부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지식구조(학제)는 ‘인식론적 재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정치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일고 있는 현 시점에는 단일 학문성에 기반한 통합된 사고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제간 융합교육을 인식론적 체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식구조의 재융합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다. 윌러스틴 교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지적적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화합 기원하는 무용과 음악 예술축제

창작무용 '물의 정거장', 이상세계 향한 염원을 물과 불의 이미지로 표현
음악 공연은 '이매진(Imagine)', '목련화' 등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로 구성



'제31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 개최 첫 날 개최식에 이어 열린 기념무용제 '물의 정거장' 공연.

올 해 'Peace BAR Festival 2012'에서는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창작무용과 음악 공연으로 문화적 향기를 더했다. 첫 날인 9월 17일, 개최식에 이어 평화의 전당에서 기념무용제가 열렸다. 경희대 박명숙 무용학부장이 창작하고 무용학부 학생이 공연한 '물의 정거장(The Station of Water)'이었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선 이상세계를 향한 염원을 물과 불의 이미지로 노래한 강은교의 시 '우리가 물이 되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의 정거장'은 나와 남, 인종과 국가, 자연과 문명이 혼재하는 지구촌을 '물과 불'이라는 원형적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어, '근대라는 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를 프로메테우스적 문명과 이성을 맹신하는 '폭주 기관차'에 비유한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불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은 파괴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에 대응하는 원형적 이미지가 물(생명)이다. 강은교의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둘째 날인 18일,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행사가 끝난 뒤, 'UN 세

계평화의 날 기념 헌정음악회'가 개최됐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와 학생, 특별 초청된 팝페라 가수 카이(정기열) 등이 솔로, 중창, 합창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줬다. 연주는 홍성규 교수가 지도하는 경희피스밴드가 맡았다.

프로그램은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곡으로 꾸며졌다. 먼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유미란 교수가 플라시도 도밍고의 '영원한 사랑(A Love Until the End of Time)'을 열창했다. 이어, 스웨덴 그룹 아바의 '치키키타(Chiquitita)'를 박진경·유단비·정나윤 학생이 노래했다. '치키키타'는 아바가 1979년 유니세프 행사장에서 공연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는 일화가 있다.

카이(정기열)는 노르웨이 혼성그룹 시크릿가든이 아일랜드 민요를 편곡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You Raise Me Up)'을 솔로곡으로 노래했다. 그는 유미란 교수와 함께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의 듀엣곡 '사랑인가봐(Perhaps Love)'를 불러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유미란 교수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존 레논의 명곡 '이매진(Imagine)'을 들려줬다. 지난해 UNAI-경희 국제회의의 당시 한국과 미국의 청중들은 '이매진'을 합창했다. 'UN 세계평화의 날 헌정음악회'는 미원 조영식 박사가 작사한 '목련화' 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청년 학생의 역할

UNAI ASPIRE Kyung Hee Forum, 한·중·일 학생 100여 명 참가
 “3국 간의 과거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토대로 ‘평화의 미래’ 건설해야”

국 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관에서 9월 21일 ‘동북아 지역 갈등 예방을 위한 유엔과 청년의 역할(Conflict Prevention in Northeast Asia: The Roles of the UN and the Youth)’을 주제로 ‘UNAI ASPIRE Kyung Hee Forum’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유엔협회가 주관하는 3국 모의유엔회의 및 청년포럼과 연계되어 진행됐다. 포럼에는 UNAI ASPIRE 소속 학생과 3국 청년포럼 참여 학생 100여 명이 참가했다. UNAI ASPIRE는 유엔 산하 고등교육기구 UNAI(UN Academic Impact)에 소속돼 교육·연구·봉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다.

포럼은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첸지안(Chen Jian) 중국유엔협회 이사, 타츠로 쿠노기(Tatsuro Kunugi) 일본유엔협회 이사 등 한·중·일 3국 정책담당자의 발표로 시작했다. 이상현 정책기획관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정도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센카쿠 열도와 독도 문제,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사건 등 뿌리 깊은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국가를 초월한 ‘평화 네트워크’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중·일 3국 간에 이해와 협력의 소



포럼은 한·중·일 유엔협회가 주관 3국 모의유엔회의 및 청년포럼과 연계되어 진행됐다.

통과 공감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학생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한·중·일 3국의 갈등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상호 간의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공감을 형성했다.

‘연민과 울림’ 주제로 열린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지구사회봉사 한마당에 초청된 인도의 청년환경운동가 루치 자인.

9월 18일, 지구사회봉사 한마당이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연민과 울림: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여정(Compassion and Resonance: A journey into a “Beautiful, Affluent, and Rewarding” Planet)’을 주제로 한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행사에는 1,000여 명의 학생, 교수, 직원, 시민이 참여했다.

조인원 총장은 지구사회봉사 한마당 축사에서 “자원봉사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뿐 아니라 더 크고 더 나은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이루면서 자신의 새로운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경희대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은 대학 구성원이 새로운 후마니타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경희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온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사회봉사 한마당은 인도의 청년환경운동가 루치 자인(Ruchi Jain)의 특별강연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체계적 변화를 위한 초석(The Building Blocks of a Systemic Change)’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인도 뭄바이 빈민가 방문을 계기로 환경적 혁명을 꿈꾸기 시작했다”라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빈민촌 개선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의식이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열쇠는 뉴 휴머니즘 교육”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별 강연
2012 미원렉처 ‘유네스코에서 본 21세기 평화의 토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21세기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뉴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뉴 휴머니즘 구현을 위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초청 '2012 미원렉처'가 개최됐다. 강연 주제는 '유네스코에서 본 21세기 평화의 토대(The Foundation of Peace in the 21st Century-UNESCO's View)'였다. 불가리아 출신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2009년 유네스코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환영사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대학교 광릉캠퍼스의 답에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학술기관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술의 궁극적 의미는 평화로 귀결된다'는 경희정신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인원 총장은 "점증하는 세계화의 긴장, 빈곤, 소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난제 등 인류평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특정 기관에 국한된 문

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 휴머니즘 구현 위해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경희대가 1993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유네스코 창립정신과 경희의 평화정신은 같은 사상의 뿌리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유네스코 현장 전문(前文)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념은 유네스코의 중추적 이념이자 경희의 네오르네상스 개념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타인과의 협력 속에서 지구를 보전하려는 뉴 휴

머니즘(new humanism)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한 뒤, "뉴 휴머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이 인류를 지탱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21세기에는 더 이상 국가 간의 평화유지, 정치·경제적 조약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문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문화 구축은 교육 현장에서 시작돼야 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권 보호의 기초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보코바 사무총장은 "교육 포기는 인류의 자원 낭비이자 평화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에 18억 명의 젊은이가 있다. 18억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 18억 개에 달하는 미래

를 향한 비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런 아이디어와 비전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류의 잠재력과 경제력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좌절감과 긴장을 초래하는 원천으로, 그리고 폭력을 초래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UN의 평화 구축 의제로 확립돼야 한다”면서, “평화가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고질적인 빈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유린, 차별과 소외, 이런 모든 것은 평화로 향하는 길의 장애물이다”라며 지속적인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실천과 연구 위한 젊은이들의 역할 강조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젊은이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NGO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보코바 사무총장은 “연구에 관심 있는 이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해 달라”며 교육에 대한 실천과 연구를 강조했다.

그는 “평화 구축은 모든 여성과 남성의 내재적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에서, 타인의 문화와 각국의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항구적 평화 존속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경희 구성원 모두가 헌신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강연을 마쳤다.

미원렉처는 세계적 석학·전문가·실천인을 강연자로 초빙, 지구촌 사회와 인류문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시작해 4회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미국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석좌교수, 고이치로 마쓰우라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프레드 블록 교수가 초청된 바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에 감춰진 이데올로기

2012 석학초청특강, 슬라보예 지젝 초청 “대학의 사명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인의 양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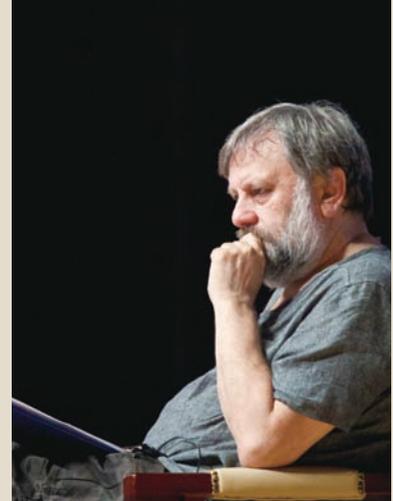
지난 6월 27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2 석학초청특강’에서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for politics)’를 주제로 강연했다. ‘철학계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도 불리는 그의 명성과 대중적 인기를 말해 주듯 이날 3,500여 명의 청중이 평화의 전당을 가득 메웠다.

슬라보예 지젝은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는 사실 여부를 직접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함축적으로 거짓을 말한다”면서 “함축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총체성(totality)을 파악하려면 ‘자본주의가 이상적으로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묘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지점까지, 국내외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젝에 따르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단지 성공한 국가들만이 아니라, 콩고처럼 실패한 국가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다. “변증법에서는 이러한 실패들이 단지 운이 없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안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한다. 실수와 대립, 그리고 끔찍한 파생물까지도 보편적인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젝이 주목하는 또 다른 현상은 실업의 증가다.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더 이상 고용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영구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소말리아와 콩고처럼 나라 전체, 또는 한 국가 내의 특정 지역 전체가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애초부터 취업이 불가능한’ 계층도 생겨나고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이 지젝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 2~3년 동안 ‘징후’를 목격했으며,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는 현 시스템이 거의 극한점까지 왔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좌파를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서구권에서 자본주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번영을 안겨줬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 또는 그런 성향의 지식인들은 “이것은 허구일 뿐이다, 위기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붕괴를 기다렸다. 지젝은 ‘그들의



석학초청특강에서 강연하는 슬라보예 지젝.

허구’를 지적했다. “정작 서유럽과 미국, 그리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좌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을 단합시켜 이와 같은 시위와 운동을 하나의 큰 제안으로 이끌기를 바랐지만, 나는 좌파 쪽에서 나온 대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지젝의 강연은 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로 끝을 맺었다. 그는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와 달리 지식인은 단순히 남이 규정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하나의 법칙으로 규명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뒤, “전문가를 배출해 달라는 사회의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사명은 지식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사고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절박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사고를 해야 한다. 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존재다.”

석학초청특강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세계적 석학을 초대, 국가와 인류 사회의 더 큰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이다. 2011년에는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이정식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 특강을 4주 동안 진행했다.

국내 최초, 우주탐사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공

경희대·버클리대학과 공동개발한 '시네마 1기', 9월 14일 발사
2013년 2월 2~3기 추가 발사, 3기가 동일 목적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경희대는 미국 버클리대학과 공동으로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 지난 9월 14일 우주로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은 초소형 인공위성 상상도.

경희대학교가 9월 14일 오전 6시 39분(한국 시간) 미국 버클리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셋·CubeSat) '시네마(CINEMA) 1기'를 미국 반덴버그에서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또, 2013년 2월에는 시네마 2기(KHUSAT-1)와 3기(KHUSAT-2)를 러시아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희대가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해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 3대가 동일 목적으로 우주공간 탐사에 활용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책임자는 일반대학원 WCU 우주탐사학과 이동훈 교수다.

'시네마'는 '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and Magnetometer'를 축약한 이름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네마 인공위성은 지구 800km 상공에서 태양이 방출하는 이온·중성자·전자 등의

입자를 검출하고 자기장 변화를 측정한다. 우주공간에 떠도는 수많은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며 지구로 유입되는데, 이를 추적하면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있다. 시네마에 탑재된 '스타인(STEIN)'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입자 검출기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시네마를 달 탐사용으로 활용하면 달표면 국소 지역에 존재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규명하고, 달의 기원에 관한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경희대는 2016년에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달 표면을 탐사할 계획이다.

2008년 WCU 사업 선정이 계기

지난 2008년, 경희대학교는 '달궤도 우주탐사 연구' 과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우주·국방 분야 제1유형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경희대는 WCU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 및 우주공간 물리 연구를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융복합 교육을 시도했다. 이를 계기로 일반대학원에 WCU 우주탐사학과(School of Space Research /KHU)가 설립됐다.

경희대 대학원 우주탐사학과와 우주과학과 연구진은 2009년부터 미국 버클리대학과 공동으로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0cm, 무게 3.1kg의 시네마 인공위성을 설계·제작해왔다. 이 연구에는 영국 임페리얼대학도 참여했다.

초소형 인공위성 사업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개발에서 제작,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인공위성의 0.1% 정도인 5억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성체 기술 개발과 더불어 과학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우주탐사용 인공위성이라는 점에서, 시네마는 다른 나라의 초소형 인공위성과 차별화된다.

경희의 연구역량, 세계적 학술지에서 주목받아

의전원 윤태영 교수,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 논문은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선정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위)와 의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아래)의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됐다.

경희의 최근 연구 성과들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 연구팀,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우울증 치료제에 척수 손상 치료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발견한 윤태영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 과학 학술지 <브레인(Brain)> 8월호에 실렸다. 이 논문에서 윤태영 교수는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의 플루옥세틴 성분이 척수 손상 후 혈관·척수장벽이 파괴되는 것을 억제해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척수, 즉 척추 속의 신경이 자동차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손상을 입으면 혈관이 터지는데, 이때 혈액 내 면역세포가 신경계 조직에 침투할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 세포를 사멸시킨다. 윤태영 교수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프로작의 플루옥세틴 성분이 세포외기질을 파괴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MMP-9)의 활성도를 낮추고, 혈관·척수장벽 손상과 염증 반응을 크게 줄여 세포를 보호하고 운동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뇌졸중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윤태영 교수는 이 기능으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국제캠퍼스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 연구팀은 ‘꿈의 나노 물질’로 불리는 그래핀(graphene)의 양자점 크기에 따라 변하는 모양과 끝자리 상태, 그리고 형태에 따른 발광 에너지의 크기 변화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8월 12일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세계적 나노과학 저널 <ACS Nano>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그래핀 양자점의 비정상적인 발광 특성: 크기와 모양의 복합적인 작용(Anomalous behaviors of visible luminescence from graphene

quantum dots: Interplay between size and shape)’이다.

그래핀은 0.34nm 두께의 매우 얇고 투명한 물질이다. 화학적 안전성과 전기전도성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매우 높아 늘리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잃지 않는다. 그래핀을 이용하면 휘어지는 액정화면 구현이 가능하고, 각종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 논문이 분리막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멤브레인 사이언스 저널(Journal of Membrane Science)>에서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발표된 논문 제목은 ‘내오염성 향상을 위한 PVDF/TiO₂ 유·무기 복합막의 제조·특성(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VDF/TiO₂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s for fouling resistance improvement)’이다.

경희, 논문 인용 횟수 2위

최근 5년간 연구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던 경희의 연구 수월성이 재확인됐다. 6월 14일, 한국연구재단이 2008~2009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인용지수(IF·Impact Factor)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희대는 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 논문의 저자가 소속한 대학 순위 2위에 올랐다. 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0% 논문의 저자가 소속한 대학 순위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

2012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학술·행정 발전의 구체적 방향 논의
 “대학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제도 개선 요구 최대한 반영”



강원도 홍천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2012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는 100여 명의 교무위원이 참석하고, 200여 명의 교수·교직원들이 웹캐스트를 통해 참여했다.

2012 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 연찬회가 지난 8월 22~23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됐다.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Academe and Administration, On the Way We Are)’를 주제로, 지난 5년간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온 경희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대학 발전의 중추인 ‘학술’과 ‘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재정사업위원장,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경희사이버대학 부총장 및 교무위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200여 명의 교수·교직원이 웹캐스트를 통해 생중계된 연찬회에 참여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2월 2011학년도 합동교무위원연찬회를 열고, 2007년 이후 강화된 대내외 위상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의 창조적 여정에 나섰다. 올해 3월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가지 않은 길’의 진로를 탐색했다.

이번 연찬회는 학문과 평화, 학술과 실천의 지구적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논의의 장이었다. 부분과 전체의 조화로운 결합, 학술문화와 전문행정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배려와 존중의 ‘행정위원회’ 설치 계획

연찬회에서 조인원 총장은 “그동안 제도, 정책 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뤘지만, 구성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개인, 학과, 단과대학(원)의 요청이 구성원 개개인과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틀 속에서 자아실현과 타자에 대한 배려, 공

감과 합의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긍정의 정치’처럼 대학과 구성원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인원 총장은 “교수 개개인이 즐겁고 보람된 마음으로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수·학생이 본연의 학술적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도와 정책 차원의 서비스를 큰 폭으로 개선해, 다양한 구성원의 자기발전을 위한 필요와 요구를 ‘배려와 존중의 행정문화’로 수렴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장단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발족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

올해 착공하는 캠퍼스 마스터플랜과 관련, 조인원 총장은 “새로 들어설 건물 하나

하나에 경희의 역사와 전통,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뜻과 의지, 열정과 정성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과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물, 조경, 캠퍼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한 뒤, 건물별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조직,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래지향적 학술·행정 위한 혁신 필요”

이번 연찬회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미래대학을 향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연구 수월성을 추구하는 경희의 학술문화 진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김용민 포항공대 총장은 '대학, 그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연구중심대학이 연구에만 치중해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학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정진영 국제캠퍼스 교무처장은 "경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확실한 수월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교무처장은 "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수를 분석한 결과, 게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과 20.1%의 교수가 논문 게재 수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래지향적 학술문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전문행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희대학교는 그동안 연구·교육·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정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추구하는 교수가 존중받는 학술문화의 진흥, 그리고 열정을 갖고 헌신·노력하는 교수들이 교육·연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학술행정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선진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영진 연구산학협력처장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으로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꾀고,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지원하고 이끌어내는 학술행정의

개선을 요청했다. 최익환 국제캠퍼스 사무처장은 발전지향적인 조직문화 구현, 직무 전문가 그룹 육성을 제안했다.

“공감대 형성 위해 정보·인식 공유”

이들간 열린 합동교무위원연찬회는 '총장과의 대화'로 마무리됐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는 지난 5년간 600여 명의 교수를 새로 초빙했다"는 말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한 뒤, "이는 국내외적으로 이례적인 일로, 학술 진작에 대한 대학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교육·연구 면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을 위해 기탄없이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과 정보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학과, 단과대학(원),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이후 주관 부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하며, 합동교무위원회 홈페이지에 논의 내용과 사안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지하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기에 처한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

포항공대 김용민 총장, '대학문화의 전환' 강조



김용민 포항공대 총장은 '수월성의 문화'를 강조했다.

2012학년도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 초청된 김용민 포항공대 총장은 '대학, 그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용민 포항공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요청했다. 김용민 총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가치관, 진실성·진정성·전문성을 갖춘 문화, 구성원이 소통·협업하는 분위기 등 대학문화 전반의 변화를 강조했다.

강연 첫머리에서 김용민 총장은 대학의 '기본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교육'이다. "오늘날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하면서 교수가 연구에만 치중하고, 교육, 특히 학부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연구

중심대학은 연구가 교육에 스며든 대학"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학부 1~2학년 때부터 연구실에 들어가 연구를 통해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갖는 학술문화를 조성해 대학 내에서 연구와 교육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계속해서 "대학은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해야 한다"면서,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을 제안했다.

김용민 총장은 세계 명문대학의 공통점으로 '수월성의 문화'를 꼽고, 이러한 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문화는 변화에 대한 학생·교수·직원 등 대학 구성원 간의 긍정적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학과와 학과, 대학과 대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가능할 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 뒤, "이를 위해 대학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사회 봉사단(GSC), 몽골 대통령 훈장 수훈

경희의 의료봉사·사막화 방지·교육·문화 등 글로벌 사회공헌 인정
경희학원 역량 결집,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 모델 창출 모색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은 지난 7월 몽골봉사단을 파견했다.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팀(사진)은 만달고비 지역에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생태봉사 활동을 펼쳤다.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이 지난 7월 28일 국내 대학 최초로 몽골 대통령 훈장을 수훈했다.

학생·교수·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경희의료원 의료진 40여 명으로 구성된 몽골봉사단은 7월 6일부터 30일까지 교육·의료·문화예술 봉사활동과 함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7월 28일 몽골 차히야 엘베도르지 대통령이 수여하는 551번째 ‘민주혁명 90주년 훈장’을 전달받았다.

지구사회봉사단은 교육·문화 봉사 및 교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의료봉사 등으로 팀을 구성, 봉사활동 기간 중 총 4차례에 걸쳐 몽골 현지에 파견했다.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팀은 만달고비 지역에서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은 뒤 물을 주는 생태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편,

미술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 재학생과 함께 대학 외벽에 벽화를 그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이 밖에도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희 의료진 18명은 현지 주민 대상으로 가정의학과·내과·영상의학과·임상병리과·치과·한방과 등 6개 진료과목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칭켈테이 국립병원에서 1,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7월 6일 가장 먼저 파견된 교육·문화 봉사팀은 아동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및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

교육·연구·실천 결합한 사회공헌 모델

몽골봉사단 파견에 앞서, 지구사회봉사단은 지난 6월 26일 서울캠페스 공관에서 ‘총장 주재 GSC 합동회의’를 열고, 경희의 사회공헌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하

버드대학교 폴 파머 교수, 올해 설립된 하버드대학 글로벌헬스인스티튜트(Global Health Institute) 프로그램을 소개한 뒤, “기아, 질병, 인권, 평화, 기후변화, 물 부족 등 지구촌 곳곳에 산적한 인류의 난제가 우리의 열정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GSC를 통해 교육·연구·실천이 결합된 경희의 사회공헌 모델을 창출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의식확장의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간에게 사랑을, 인류에게 평화를”

경희대학교는 1980년대부터 인류사회 재건과 평화를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인간에게 사랑을, 인류에게 평화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희지구사회봉사단을 창설, 미래대학의 새로운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걷고, 읽고, 생각하는 국토순례대장정

7월 30일부터 14박 15일, 참가자 전원 200km 완주

지난 8월 13일 서울캠퍼스 본관 앞 광장에서 '2012 국토순례대장정' 해단식이 열렸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012 국토순례대장정'에 참가한 학생 61명(서울캠퍼스 33명, 국제캠퍼스 28명) 전원은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약 200km를 완주했다.

올해 국토순례대장정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후 높아진 학생들의 인문학적 요구를 반영, 걷기와 독서 및 토론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학생지원처는 도보 기행을 하는 동안 타

인과 소통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주차는 '고전 강독, 독서 토론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2주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국토순례대장정.

차는 '도보 기행'으로 일정을 꾸몄다. 행사 부제는 '소통과 성찰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국토순례대장정'이었다.

이번 '2012 국토순례대장정'을 이끈 장현영(간호학과 08학번) 단장은 "1주차에 <논어>를 읽으며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과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운 뒤, 단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단원들과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진 뒤 도보 기행을 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화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국 옌벤에서 의료봉사

대학병원·기업 상호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지난 8월 15일부터 5일간 중국 옌벤 연지(延吉) 제2인민병원에서 조선족자치주 주민 1,018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옌벤 의료봉사에서 확인된 조선족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함, 7개 과목의 의료활동이 이뤄졌다.

올해 옌벤 의료봉사를 진행한 '희망사회 만들기' 의료봉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롯데복지재단이 대학병원과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일환으로 구성된 단체다. 의료봉사단은 유명철 의무부총장과 경희 의료진, 롯데복지재단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료진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집도했으며, 둘째 날부터는 제2인민병원 의료진과 함께 팀을 꾸려 체계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료진은 정형외과(엉덩이관절, 무릎관절, 척추), 내과(류마티스내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등 7개 진료과를 개설, 총 3,443건의 진료와 함께 인공 엉덩



이관절 수술, 인공 무릎관절 수술, 척추 수술 등 6건의 수술을 진행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옌벤 제2인민병원과 의료진 상호교류와 연수를 추진해왔으며, 인공관절 수술법을 강의하는 등 학문 교류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기숙사 3개동 신축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선정, 정부지원금 포함 265억원 투입
기숙사 수용 인원 1,039명 증가, 수혜비율 16.13%로 상승



서울캠퍼스에 1,0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3개동이 새로 세워진다. 이문동·회기동 기숙사는 2013년 2월, 대운동장 부지 기숙사는 2014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서울캠퍼스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기숙사 신축이 가능해져 학생복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2012년도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 서울캠퍼스가 소유한 대운동장·이문동·회기동 부지에 총 1,039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3동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은 대학생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은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진흥기금을 저리로 대여받고, 각종 건축 규제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경희대를 비롯, 세종대·단국대·대구한의대 등 4개 대학,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희대는 수도권 대학 최대 규모인 235억원을 지원받는다. 3개 사업에 동시 선정된 경희대는 국고지원금과 교비 30억원을 투입, 총 265억원을 기숙사 건립에 투자할 계획이다.

경희는 대학 기숙사를 단순한 학생 주

거 공간이 아닌 '제2의 교육시설'로 운영해왔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신입생 전원에게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담당 교수와 선배의 지도를 받는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캠퍼스는 기숙사 신축에 제약을 받아왔다.

기숙사 비용 월 19만원 책정

기존의 서울캠퍼스 기숙사 수용 인원은 1,566명으로, 학생 수 대비 수혜비율이 9.7%에 그쳤다. 이번 기숙사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총 수용 인원이 2,605명으로 증가, 수혜비율이 16.13%로 향상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학생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기숙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에 새로 건립되는 기숙사는 총 3개동이다. 이문동 부지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지하층을 포함, 8개층 규모에 수용 인원은 73명이다. 2인 1실 기준 숙소 36실 외에 장애인용 1실이 따로 마련된다. 회기동 부지 기숙사는 지하층을 포함, 5개층 규모에 수용 인원은 41명이다. 2인 1실 숙소 20실, 장애인용 1실이다. 이문동·회기동 기숙사는 오는 9월 착공, 2013년 2학기부터 입주가능하다.

서울캠퍼스 내 대운동장 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숙사가 들어선다. 2인 1실 460개, 장애인용 5개로 총 925명을 수용한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14년 2학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에 새로 지어질 기숙사 운영은 사학진흥재단과 대학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담당,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2인 1실 기준 기숙사 비용은 월 19만원으로 책정됐다. 연평균 인상률은 2% 이내로 제한했다.

치전원, 69억 연구비 지원받는 MRC 사업 선정

손상된 치아·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새 치료법과 신약 개발 가능성 열려
의·치·한의학 3개 대학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선정은 국내 최초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의과학연구센터(Medic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경희대는 국내 최초로 의·치·한의학 3개 대학에서 MRC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07년 한의과대학 암예방소재개발연구센터(센터장: 김성훈 교수), 2011년 의학전문대학원 활성화산소연구센터(센터장: 김성수 교수)에 이어, 올해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아와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센터장: 김은철 교수)가 MRC 사업에 선정돼 2019년까지 7년간 연구비 약 6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MRC 사업은 의·치·한의학 기초의학교실을 중심으로 기초의과학 부문 거점 연구조직을 육성, 생명공학에 활용 가능한 지식과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이 사업에 지원한 치아와치주조직재생

연구센터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최종 선정됐다.

조인원 총장, “의과학의 더 큰 미래” 당부

조인원 총장은 9월 11일 치전원의 MRC 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번 사업 선정은 대규모 지원을 받게 된 것보다 치전원의 탁월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앞으로도 단과대학(원)이 탁월한 교수를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대학본부도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면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63년 경희의 역사를 소중히 가꾸면서 교육과 연구의 미래를 여는 탁월한 학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치아와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는 MRC 사업을 통해 치아·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통합 연구, 즉 치아와 잇몸·잇몸뼈(치조골) 등 치주조직이 손상되는 원인과 과정을 파악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초·임상 연계, 장기간 공동연구

치주질환 초기에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 부어오르고 출혈증상이 나타난다. 증세가 악화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려 잇몸이 부실해지면서 치아가 흔들리는 풍치로 진행된다. 손상된 치아나 풍치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 치전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치아·치주조직 손상과 면역 기전을 밝혀 손상 차단과 재생 촉진 제어 표적분자를 발굴, 재생 및 신약 후보물질 개발의 길을 개척할 계획이다.

연구는 1총괄과 2총괄,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총괄은 치아·치주질환 기전 규명과 선도물질 개발을 연구하고, 2총괄은 치계 줄기세포의 신호전달 기전 및 나노융합 생체소재 개발을 연구한다. 한쪽에서는 발병 원인을 밝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줄기세포·나노입자·생체고분자 등을 활용해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을 찾아낸다. 치전원 교수 10명을 주축으로 연구원 50명과 7개 기업이 참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과 기초를 아우르는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센터장인 김은철 교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장기간의 공동연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기업 등이 서로 연계해 치의학의 핵심 연구 분야인 치아와 치주조직 손상 및 재생에서 새 패러다임의 제어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의 우승 행진, 멈추지 않는다

MBC배 전국대학농구 2연패, 회장기 양궁대회 남녀 단체 동반 금메달
런던올림픽에서 체육대학 동문 및 코치 맹활약



지난 1학기 동안 경희대 농구부(사진)가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2연패를 차지한 외에도, 양궁부와 야구부, 축구부가 우승 소식을 전해왔다.

2012년 1학기를 마감하며 경희 체육부가 연이은 우승 소식을 전해왔다. '대학 최강' 경희대 농구부는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2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양궁부는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양궁대회' 대학부 결승에서 남녀 모두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야구부와 축구부는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한편, 런던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로 출전한 동문 13명은 축구·펜싱·체조·탁구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구부 7월 20일 경상북도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에서 경희대는 고려대를 60-58로 물리쳤다. 이날 3점슛 4개를 포함, 22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한 두경민(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골밑을 장악한 김종규(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도 14득점, 16리바운드로 팀 승리를 도왔다. 이날 승리로 경희대 농구부는 2011년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농구부는 2011~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에서 42연승 무패의 대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양궁부 경희대 양궁부는 6월 22일 폐막된 '제29회 올림픽 제패 기념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양궁대회' 남녀대학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대구 율하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경희대는 한국체육대학을 227-223으로 꺾었다. 남자양궁팀은 스포츠지도학과 정성원(07학번), 박중보(09학번), 최건태(11학번), 박성호(12학번) 학생으로 구성됐다.

같은 날, 스포츠지도학과 정다소미(09학번), 장은빈(11학번), 김지혜, 김희애(이상 12학번) 학생이 호흡을 맞춘 여자양궁

팀은 계명대를 219-198로 따돌렸다. 정다소미 학생은 전날 열린 여자대학부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야구부 '제4회 협회장기 경기도 대학야구대회' 겸 제93회 전국체육대회 평가전에 경희대는 성균관대를 5-3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7월 4일 안양 석수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은 11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였다.

3년 만에 경기도 대표로 전국체전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경희대 야구부는 2006년과 2009년 전국체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축구부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발전'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경희대 축구부는 2008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6월 18일 용인축구센터에서 열린 결

승전에서 경희대는 경기종료 직전 임창균(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의 극적인 헤딩슛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팀 성균관대를 1-0으로 꺾었다.

런던올림픽 대표팀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열린 '2012 런던올림픽'의 축구, 펜싱, 체조, 탁구, 핸드볼, 필드하키 등 6개 종목에 총 13명의 동문이 선수 및 지도자로 출전했다. 축구, 펜싱, 체조, 탁구 종목에서는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도 거뒀다.

축구에서는 오재석(스포츠지도학과 08학번), 정우영(스포츠지도학과 08학번) 동문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올림픽 첫 메달이었다.

펜싱에 출전한 정진선(스포츠지도학과 02학번) 동문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조 대표팀 코치로 출전한 유옥렬(체육학과 91학번, 현 체조부 코치) 동문은 양학선(한국체육대) 선수가 한국 체조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의 쾌거를 이루는 도약대 역할을 했다. 유남규(체육대학원 스포츠학 박사과정 02학번) 동문은 남자 탁구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 단체전에서 은메달의 성과를 거뒀다.

현정화(체육대학원 스포츠학 박사과정 01학번) 동문은 여자 탁구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 대표팀을 지도했다. 핸드볼에서는 홍기일(체육학과 93학번) 대표팀 코치 및 윤경신(체육학과 92학번), 박경석(스포츠지도학과 05학번), 이창우(스포츠지도학과 02학번), 정의경(스포츠지도학과 03학번), 정수영(스포츠지도학과 04학번) 동문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장수지(스포츠지도학과 06학번) 동문은 필드하키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 동메달을 차지한 정진선 동문.

GC Summer Program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성장

2012년, 국내 학생 227명, 외국 학생 293명 참가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에 참가하는 외국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 '2012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이 진행됐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문명(Global Governance and East Asian Civilization)', 국제캠퍼스에서는 '녹색 지구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s Towards Green Planet)'을 주제로 4주간 수업이 이뤄졌다.

올해 서울캠퍼스의 총 수강 인원은 385명으로, 국내 학생은 150명, 외국 학생은 235명이었다(29개국 31개교). 국제캠퍼스 강좌에는 총 13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학생 77명, 외국 학생 58명이었다(33개국 16개교). 201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참가가 확대되면서 Global Collaborative는 한층 더 세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다. 모든 강의는 영

어로 제공된다.

올해로 5회째 참여한 프린스턴대학교 존 아이켄베리 석좌교수는 "교수진의 지속적인 헌신과 탁월한 학생들의 참여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가 상당히 인상적"라고 말한 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온 학생들의 참여가 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스와스모어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 중인 손원빈 학생은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타 대학 국제 프로그램들의 경우, 참가 학생 중 한국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인 데 비해 경희대의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 학생이 다수 참가해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공학계열 발전은 경희의 미래”

2012년 공학계열연찬회, ‘미래과학 클러스터’ 구축 논의
학문간 경계를 넘어선 융복합 학문은 경희의 새 전통

‘공학의 도약, 경희의 미래’를 주제로, 2012학년도 공학계열연찬회가 지난 8월 17~18일 경상북도 문경에서 개최됐다. ‘경희 공학’의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이번 연찬회에는 조인원 총장, 오택열 국제부총장, 이준규 재정부총장, 최동주 재정사업위원장을 비롯, 공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교수 120여 명이 참석했다.

조인원 총장은 최근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서 <지구의 사회적 정복(The Social Conquest of Earth)>을 발표해 생애 세 번째 풀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에드워드 윌슨 교수를 소개한 뒤, “윌슨 교수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학문에는 연령 제한이 없고,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학술토론과 소통이 그 무엇보다 승

고한 가치이며, 대학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좌표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인원 총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



지난 8월 개최된 공학계열연찬회에 참석한 교수 120여 명은 경희의 공학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는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융복합 학문이 경희의 또 다른 전통으로 자리 잡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찬회에서 전자정보대학 홍충선 교수는 “경희 공학은 최근 5년간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정보대학 이성원 교수는 ‘미래과학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연찬회 참석자들은 융복합 연구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 개최

21세기 온라인 교육혁명 선도할 새 전범 모색
사이버대학교와 협력, 경영학 강좌 온라인으로 제공

2012학년도 하계 경영대학 교수 워크숍이 지난 7월 12일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에이미 거트만 총장이 시대 변화에 맞게 다전공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확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한 뒤, 경영대학 강좌의 온라인 콘텐츠화를 강조했다. “서울·국제캠퍼스와 경희사이버대학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강의의 개설할 경우, 학생들의 수요에 부

응하고, 문명 전환과 함께 급변하는 고등 교육 환경 속에서 21세기 온라인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대학의 새 전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용 경영대학 부학장은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 추진 현황과 과제를 보고했다. AACSB 인증을 획득하면 국제학술교류, 대학 간의 학점 인정, 교환학생 교류 등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

이어, 김상만 교수는 ‘경영교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이버대학교와의 연계협력 방



안’을 발표했다. “최근 다전공 활성화에 따라 경영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희사이버대학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면 경영학 강좌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승 교수는 “최근 기업에서는 이윤창출을 넘어,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통한 책임경영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한 뒤, “대학에서 책임경영·윤리경영을 교과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교수, 경암학술상 수상



이정식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가 '제8회 경암학술상' 인문사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정식 교수는 미국정치학회가 선정한 최고의 저작상인 우드로 윌슨 상을 수상한 <Communism in Korea>와 <21세기 다시 보는 해방 후사>(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펴냄) 등 현대 한국정치의 역사적 기반을 밝히는 탁월한 저서, 논문으로 국내외 정치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현대 한국정치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정식 교수는 평생에 걸쳐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남북분단, 대한민국의 기원 등에 대한 저술과 한국현대사의 중심인물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왔다. 그는 한국정치 연구에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한일관계사, 만주지역 중국공산주의 운동사,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탁월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암학술상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이론 발굴의 업적으로 사회의 공동선에 확고히 기여하고 있는 학자, 예술가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는 상으로, 경암교육문화재단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2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2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2억 원의 상금 및 상패가 수여된다.

김재홍·권택영·조복희·강현숙 교수, 정년 연장

국어국문학과 김재홍 교수, 영어영문학과 권택영 교수, 아동가족학과 조복희 교수, 간호학과 강현숙 교수의 정년이 연장됐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 정년연장 기본방침을 수립, 연구 업적이 뛰어나거나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만 63세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연구 실적, 교육 평가, 사회봉사 실적 등 교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해당 분야 최고 석학 수준으로 평가된 교수는 정년 이후 5년 동안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상위 25%에 포함된 해가 5년 이상 지속된 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최초 3년,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 2년 동안 정년이 연장된다.

이은태 명예교수, 대학발전기금 기부



토목공학과 이은태 명예교수가 9월 4일 대학발전기금 2,000 만원을 기부했다. 이은태 명예교수는 30여 년간 경희대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지난 8월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에 임명됐다. 이 교수는 1993년부터 일반발전기금 및 토목공학과 기금을 꾸준히 기부해왔으며 30년간의 봉직을 기념하는 정년퇴임식을 마다하고 퇴임식 비용을 포함,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강철훈 교수팀, 신개념 약물 전달 복합체 개발

동서의과학과 강철훈 교수팀이 고려대 화학과 김종승 교수팀과 공동으로 신개념 약물 전달 복합체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미국화학회지(JACS)> 8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약물 전달 복합체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전달 과정까지 직접 모니터링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현국 학생, '2012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특허청장상 수상

김현국(기계공학과 07학번) 학생이 한국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2012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행기술 조사 부문에서 특허청장상을

을 수상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전기자동차 냉난방 시스템의 연속운전 방법에 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중요성을 효율 및 비용의 관점에서 판단했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종희 교수, <북한문학 연구자료총서> 발간

국어국문학과 김종희 교수가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 자료와 북한의 시, 소설, 비평을 정리한 <북한문학 연구자료총서>(국학자료원 펴냄)를 발간했다. 이번 총서는 남북한 문학의 비교 연구와 교류, 한민족 문학사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찬됐다. 총서는 총 4권으로, 1권에는 국내 학자들의 북한문학 관련 연구 성과 21편, 2~4권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시, 소설 비평이 실렸다.

박규창 교수팀, 차세대 조명기기 'FEL'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박규창 교수팀이 LED 패키지 전문기업인 씨티엘과 함께 LED를 뛰어넘는 차세대 조명기기인 'FEL(Field Emission Lamp)'의 개발 및 상용화에 나선다. 박규창 교수팀은 전자를 생성하는 'FE(Field Emission)' 기술을 개발해 국내 및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씨티엘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김원준 학생,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컵 2012' 3위 달성



김원준(컴퓨터공학과 03학번) 학생이 '제10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매진컵 2012'에 한국대표팀으로 출전, 메트로 스타일 앱 챌린지 부문 3위에 올랐다. 김원준 학생은 타 학교 학생 4인과 '톡톡(Tok Tok)'팀을 결성,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윈도우8용 애플리케이션 '해피넛(Hapeanut)'을 개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선영 교수, 일본혈액학회 '2012 Travel Awardee' 선정

경희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선영 교수가 8월 2일, 일본혈액학회가 학술업적이 높은 젊은 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2012 Travel Awardee'로 선정됐다. 조선영 교수는 그동안 임상화학 분야의 SCI 논문을 다수 발표해왔으며 2010년부터 3년 연속 관련 학술대회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학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0월 19~21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다. 조선영 교수는 지난 6월 제4회 미래의학자상 수상자에 선정된 바 있다.

이재원 동문, '2012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당선

이재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0학번) 동문이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12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은 <이름을 찾는 주체들의 문장 - 신해욱, 이근화, 심보선의 시를 중심으로>. 본심 심사를 맡은 이광호, 김미현 심사위원은 "최근의 한국시에서 '나'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다인칭의 목소리로 나아가는 흐름을 의미화하고 있다"며, "젊은 시인들의 텍스트를 비평적인 틀로 엮어내는 문장력과 구성력이 돋보였고, 그것이 재래적인 서정적 자아와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해내는 능력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강·김도희 학생, '제1회 크레신 수퍼 디자인 어워드' 대상 수상



박지강(산업디자인학과 07학번), 김도희(산업디자인학과 08학번) 학생이 9월 12일 열린 '제1회 크레신 수퍼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폰·헤드폰 제작업체 크레신이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215점의 응모작 중 10개 작품이 선정됐다. 박지강·김도희 학생팀은 자신의 개성에 맞춰 헤드폰 디자인을 꾸밀 수 있도록 표현한 작품 '카멜레온(Chameleon)'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간담회

후마니타스칼리지가 7월 13일 서울 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원 총장, 도정일 대학장과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교수진, 김지혜(철학 07학번)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장, 임송이(언론정보 10학번) 대학주보 기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상환 서울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핵교과·시민교육·글쓰기 등 후마니타스칼리지 교과과정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와 당면과제, 미래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프린스턴대학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입한 'Bridge year program' 제도를 소개하며,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신입생, 재학생에게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대학교육과 시민교육을 연결하는 창의적 교육 방법을 모색해 자신의 삶과 인생, 자연과 문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큰 교육'의 귀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ridge year program'은 신입생이 1년여의 기간을 휴학한 후, 기후변화·인권·평화·물 문제 등 글로벌 아젠다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제도다.

지구사회봉사단(GSC) 간담회

'총장 주재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 간담회'가 6월 11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



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GSC 학생기획단, UNAI ASPIRE Kyung Hee, 캄보디아 봉사단 소속 50여 명의 학생과 대학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의 전통은 기어, 봉사, 실천의 열정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것이 자신의 의식세계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는 스스로 찾아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대학은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주체는 '학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수혁(경영학부 08학번) 학생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의 지구적 공헌에 대한 요구가 다각화되고 있다"면서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교과와 같이 이론과 실천이 결합돼 사회공헌의 참뜻과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신축기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중앙도서관 신축기금 전달식'이 6월 25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정만 부총장은 "도서관 신축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대학에서도 개교 70주년인 2019년, 도서관 완공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지난 1학기에 중앙도서관 모금 행사를 진행해 신축기금을 마련했다.

강자현 교수, '아시아 폐쇄각 녹내장 연구회' 초청강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강자현 교수가 8월 24~2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 폐쇄각 녹내장 연구회(AACGC)'에 한국대표로 참가,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주제는 '자세에 따른 전방각 변화의 기전'이었다. 아시아 폐쇄각 녹내장 연구회는 실명의 주된 원인인 폐쇄각 녹내장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서울에서 결성됐다.

'이스탄불 프로젝트' 사전 교육

후마니타스칼리지는 7월 26일~8월 2일까지 4일간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2012 이스탄불(다문화 이해) 프로젝트'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이스탄불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문명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해 8월 터키 이스탄불 방문을 시작으로 겨울방학인 올해 1월 일본 규슈 지역 탐방까지 두 차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진행된 이스탄불 프로젝트는 지난 두 번의 프로젝트와 달리 두 팀으로 구성된 참가 학생들이 서로 다른 국가를 탐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탐방 지역은 일본과 중국으로, 일본팀은 15명(서울캠퍼스 10명, 국제캠퍼스 5명), 중국팀은 17명(서울캠퍼스 11명, 국제캠퍼스 6명)으로 구성됐다.

미래과학 클러스터 토론회



미래과학 클러스터 토론회가 8월 7일 서울캠퍼스 이과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중심 융복합 학술기관인 미래과학 클러스터의 추진 결과가 발표됐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경희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발전 동력 중 하나다. 이효성 공과대학장은 "지난 4~5년 동

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경희는 현재 제2의 도약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학내 이공계 분야의 역량 결집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대학 내 범 연계·협력 체계와 함께 개방형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가 모두 가능하게 해 많은 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다.

미국 언론인과 함께하는 간담회



'미국 언론인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6월 20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한한 미국 언론인들이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경희대를 방문한 미 언론인은 앨런 실버립(Alan Silverleib) 워싱턴 CNN 프로듀서,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The San Diego Union Tribune) 기자이자 칼럼니스트 피터 로우(Peter Row) 등 7명이었다. 경희대에서는 재학생 14명과 후마니타스칼리지 이만열(Emanuel Pastreich) 교수, 이영준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 주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미국'이었다.

2013 수시모집 경쟁률 21대 1

201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924명 모집에 61,03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다. 9월 8일 마감된 기타 전형 원서접수에서 서울캠퍼스는 전체 882명 모집에 30,411명이 지원, 34.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제캠퍼스는 전체 1,029명 모집에 21,543명이 원서를 접수해 20.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월 22일 마감된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513명 모집에 5,577명이 지원해 10.87대 1, 국제캠

퍼스는 500명 모집에 3,873명이 지원해 7.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4차 합동교무위원회 개최

2012학년도 4차 합동교무위원회가 6월 25일, 서울과 국제캠퍼스 교무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교무위원 업무보고, QS 아시아대학평가 결과 및 대학기숙사 건립사업 선정에 대한 경과보고 후, '다전공 과정 활성화 방안', '대학 소통체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 하반기에는 양 캠퍼스 건설사업 'Space 21' 착공과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가치) 공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한 뒤, "건설사업은 설계가 부분 변경되지만, 21세기를 표상하고 경희의 전통과 철학, 비전을 담아내는 캠퍼스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전략과 관련해 조인원 총장은 "명칭과 전체적인 구조,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협력체제 구축, 단과대학 역동성을 살려내는 방안 등 도약과 발전을 위한 틀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미래전략의 축이 되는 학술과 행정, 대학의 공적 실천과 기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를 기존의 세계 명문대학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미래전략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치전원, 종합진료실 환경 개선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이 9월 7일 치과병원 3층 종합진료실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치과용 유닛체어 24대, 덴탈 캐비닛 등 종합진료실 내 교육기자재의 전면 교체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기념행사로, 조인원 총장, 유명철 의무부총장, 동문, 교수,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치전원은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에 앞서 교육기자재 동문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9월 7일까지 고철수(치과대 78학번), 고광수(치과대 91학번) 등 11명의 동문이 기부에 참여해 1억 150만원이 모금됐고, 일부는 유닛체어 교체에 사용됐다.

2단계 BK21 사업 종합평가

경희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BK21) 사업 종합평가 결과, 17개 사업단(팀) 중 16개 사업단(팀)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기술 연구' 사업팀(연구책임자: 최재우 교수)은 연차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이번 종합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10월 23일 사업팀 부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및 포상을 받게 됐다.

중앙박물관, 7개 대학 연합전



중앙박물관이 11월 30일까지 경희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한양대, 육군사관학교 등 7개 대학박물관 연합전을 개최한다. '조선을 지켜낸 힘, 그 내면을 토포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각 대학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군사 관련 유물 127점이 공개된다. 사진은 경희대 소장 조선시대 화약통이다.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16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박사 139명, 석사 293명, 학사 1,577명(서울 837명, 국제 740명)이다. 최우수학위논문상의 영예는 이상화(물리학과 08학번) 이학박사, 장미란(기초의과학과 08학번) 의학박사, 석승민(디자인학과 05학번) 디자인학박사, 이군재(건축공학과 03학번) 공학박사, 판류(경영학과 09학번) 경영학박사, 카탁 아사드 마수드(컴퓨터공학과 09학번) 공학박사 등 6명에게 돌아갔다.

김정만 서울부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사회인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됐다"라며, "그동안 노력하고 축적한 자신의 소양과 성찰을 토대로 성취하고 실행하는 삶을 영유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탱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2년 8월 31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 원을 돌파했고, 2012년 8월 현재 22억 3,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성 금액 : 2,228,873,606원

- 참여 인원 : 2,003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 12호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희 캠퍼스에서 '제31회 UN 지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문명사적 대전 환기를 맞아, 현재의 문화적·정치적·사상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담론'의 가능성을 성찰했습니다.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세계체제를 주장하 신 에일대 이메일 월러스틴 석좌교수를 모시고 '인간, 정치, 문명'의 미래를 모색했으며, 지구사회봉사단(GSC)의 사회공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는 9월 셋째 주의 'Peace BAR Festival 2012' 행사를 특집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2012석학초친특강',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2012 미안렉처' 강연 내용도 수록했습니다. 경희는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 하는 등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8월에는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설회를 열어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위한 학술·행정·행정의 구체적인 방향 을 논의했습니다. 그밖에 의료·교육 봉사 활동 등의 실천, 학생복지 향상 등 다방면에 걸친 경희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제12호 2012년 9월 28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